

바다를 본 자는 더 이상 바다를 상상하지 않는다

| 보조국사 지눌 | 윤희식 풀어씀 |

이 글은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 중 돈오와 점수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지눌의 깨침을 현대어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었으며 특히 저자의 경험이 녹아있기에 더 빛을 발하는 글입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편집자 주).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아가라

[질문] 스님께서서는 ‘단박 깨달음’(頓悟)과 ‘점진적으로 닦아감’(漸修)의 두 가지 문이 모든 성인(聖人)들께서 걸으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미 ‘단박 깨달음’이라면 어찌하여 ‘점진적으로 닦아감’을 해야 합니까? 또한 ‘닦아감’이 이미 ‘점진적으로 닦아감’이라면 어찌하여 ‘단박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돈오’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問汝言頓悟漸修兩門 千聖軌躅也 悟既頓悟 何假漸修 修若漸修 何言頓悟 頓漸二義 更爲宣說 令絕餘疑〉

질문자는 본격적으로 ‘돈오’(단박 깨달음)와 ‘점수’(점진적인 닦음)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조스님께서서는 돈오·점수의 두 가지 문이 역대 모든 성인들이 걸어온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단박에 깨달았다면 왜 그 뒤에 점진적인 닦음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닦아야 한다면 왜 그 전에 단박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① 아직도 닦아야 할 것이 산터미인데 왜 굳이 ‘돈오’가 선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② 이미 단박에 깨달았다는데 왜 굳이 ‘점수’가 뒤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의문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질문자의 의문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닦을 것이 더 남았으면 ‘돈오’라고 하지 말던가, 이미 깨달았으면 ‘점수’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근본적으로 ‘절대계·현상계’의 혼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조스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답변]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頓悟)은 무엇인가?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가 모인 것을 우리 자신의 ‘몸’이라 여기고, 망령된 생각의 다발을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 여겨서, 자신의 본성이 바로 ‘참 법신¹⁾’임을 모르고, 자신의 ‘신령스러운 앎’이 바로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여,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 저리 헤맨다.

그러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이 일어남에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 의식의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고서, 이 ‘본성 자리’는 원래부터 번뇌가 붙을 수 없는 자리이며, 이 번뇌성이 없는 신령스러운 앎의 성품은 본래부터 자신에게

1) 법신(法身): 진리의 몸, 참나 자리를 말함.

이미 넉넉히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때문에 이를 ‘돈오’라고 한다.

〈答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不知自性 是真法身 不知自己靈知 是真佛也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迴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原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미혹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한자를 한 번 보세요. ‘미혹할 미’(迷)자죠. 미혹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쉬엄쉬엄 갈 착’(𡇗)에, 길이 팔방으로 나있다는 뜻에서 ‘미(米)’자를 썼습니다. 즉, 미 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방으로 헤맨다. 우리네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 정확한 길을 몰라요. 이리 가야하나, 저리 가야하나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나’를 망각하고서는, ‘몸뚱이’에 집착하고, ‘망상’에 집착하면서 윤회의 세계를 돌고 돕니다.

불교에서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원소는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원소를 통한 분석방법은 인도나 서양에서 주로 씁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수(水)·목(木)·화(火)·토(土)·금(金)’의 ‘오행(五行)’을 주로 쓰면서도 4원소를 통한 분석방법도 함께 썼는데, ‘사상(四象)’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 ‘음양(陰陽)’으로 이루어진 ‘태극(太極, ☯)’ 주위로 ‘건(乾, ☰)·곤(坤, ☷)·감(坎, ☵)·리(離, ☲)’의 ‘사상(四象)’이 사방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 것은 ‘8괘’중에 ‘선천 8괘’의 배열법에 따른 것입니다. ‘건(乾)’은 ‘하늘(天)’을 나타내고, ‘곤(坤)’은 ‘땅(地)’을 나타내며, ‘감(坎)’은 ‘물(水)’을 나타내고, ‘리(離)’는 ‘불(火)’을 나타냅니다.

즉 ‘천(하늘)·지(땅)·수(물)·화(불)’인데, 이것이 인도나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4원소’랑 동일하죠. ‘하늘’이 ‘바람’이니깐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4가지 분류방식은 너무 정태적 관찰이라고 하여, 동태적인 관찰인 5가지 분류방식인 ‘오행’을 주로 썼습니다. 4는 동서남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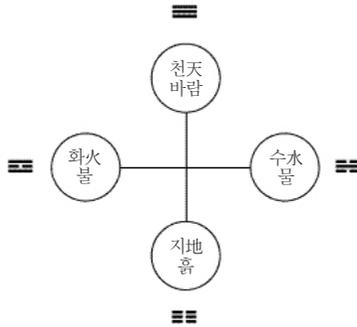


그림 1. 4원소와 4상

방으로 흩어져 있으며 가운데 중심이 없잖아요. 가운데 중심이 없으니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정태적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중심이 튼튼하여 움직임에 막힘이 없는 5를 동태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기 특징이 다르죠.

아무튼 인체를 포함한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모든 물질은 4가지 분류법으로 볼 때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가지 분류법으로 보았을 때는 ‘수·목·화·토·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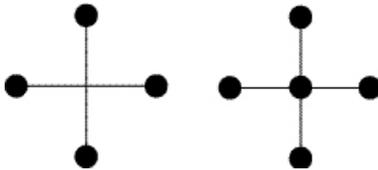


그림 2. 사상과 오행

각설하고 우리가 ‘나의 몸’이라고 여기는 몸뚱이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원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시간·공간의 제약을 받는 제한적이고 무상(無常)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소멸하는 존재들이죠. 이러한 변화하는 원소들의 집합체인 우리 ‘몸뚱이’를 ‘나’를 대표하는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할 수는 없죠. 4원소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도 옛것은 새것으로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과 감정의 다발’일 뿐입니다. 매 순간마다 셀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이 쉼 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치 파도와 같죠. 파도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한 생각이 지나가면 그 다음 생각이 또 오고 또 오고, 끝이 없죠. 멈추는 법도 없고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본래 이렇게 쉼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바 그 기능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바 그 기능을 멈출 수 없어요. 이렇게 오고 가는 생각·감정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영원불멸의 나’를 대표하겠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마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나’를 대표하는 ‘영원불멸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나’, ‘영원불멸의 나’를 잊고 삽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참나’ 즉 ‘법신’(法身, 진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을 몰라요. 이 ‘참나·참 마음’을 몰라서, 이리저리 뭐 신령한 것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보물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지루하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지루함’이라는 대상을 향해 치달리는 우리의 의식을 돌이켜서, ‘지루함’이라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인 ‘순수한 나·참나’ 자리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신령한 지혜’가 이미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곧 소멸하고 말 ‘몸뚱이’를 애지중지하고, 온갖 허망한 번뇌·망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한 시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체 중생들의 살림살이예요. 이런 생활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인간의 모든 번뇌·고통은 모두 ‘참나’를 잊어버려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영원불멸하는 나의 본체’를 찾아야죠. 우리가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아무리 고귀한 ‘감정’을 내더라도 여전히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참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멋진 절·멋진 불상을 찾아다니는데 그것도 ‘오감’의 경계에 불과합니다. 절이 웅장하고 멋진 불상이 있으면, 이 절이 좀 영험한 절인가 보다 합니다. 오감에 취하는 것, 현상계에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교당이 좀 크면 자기 계제가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다 오감의 세계, 바깥에서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각에서 찾고, 감정에서 찾고, 오감에서 찾는 것, 모두 다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부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구하려면 숲으로 가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죠. 부처 없는 곳에서 부처를 찾으니까 그게 찾아집니까? 자신의 오감이나 만족시키고, 기분이나 좀 풀고, 마

음의 위안이나 조금 받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세세생생
빌고 또 빌어도, 부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구하라!

그렇다면 ‘부처’는 과연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이게 궁금하죠. 부
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부처 자리’가 ‘순수한 나·참나’가 아니었던가요? 순수
한 나이건 참 나이건 다 ‘나’지 ‘남’이 아니죠. ‘나의 본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느낌’은 어디 있나요? ‘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그 느낌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나’는 ‘나’에게서 구해야 옳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느낌’을 직
접 느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나라는 느낌’은 ‘앉
아있는 나’이거나 ‘서있는 나’, 혹은 ‘우울한 나’이거나 ‘기쁜 나’, 그리
고 ‘고민하는 나’이거나 ‘답답한 나’일 겁니다. 모두 시간·공간, 그리
고 오감·감정·생각에 의해 제약된 ‘나’일 것입니다. 온갖 대상들에
의해 덧칠해진 ‘나’이죠. 그래도 그 느낌에 주목해보세요. 외적 요인들
에 의해 왜곡되어 있더라도 ‘나’는 ‘나’이죠.

그 ‘나라는 느낌’에서 시간·공간, 오감·감정·생각에 의해 왜곡되
지 않은 ‘순수한 존재감’을 찾아보세요. 시간도 인식하지 못하고, 공간
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감도 인식하지 못하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해보세요. 방법은 아주 쉽

습니다. ‘나라는 느낌’에 시선을 고정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른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든 사라지든 무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오직 ‘순수한 나의 존재감’에만 두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안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나’의 현존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조스님은 다음과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 의식의 빛을 돌이켜라!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라!”라고 말입니다. 간단하죠. ‘순수한 나’는 우리의 생각·감정·오감에 의해서 항상 물들게 됩니다. ‘나’라고만 하면 어떠한 제약도 느끼지 못하는데, ‘고민하는 나’, ‘답답한 나’라고 하면 그 즉시 시간·공간, 생각·감정·오감에 의해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한 순간에 달려옵니다. 우리가 100% ‘나’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제약도 구속도 받지 않은 채 100% 순수한 본연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지루하다!”라는 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나와 지루함을 동일시하여 ‘나 = 지루함’이라고 판단하려고 할 때, ‘나’를 ‘지루한 나’로 만들지 마십시오. 100% 순수한 ‘나’를 ‘지루함’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지루함’이란 우리 마음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생각·감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오고가는 터전이 되는 ‘순수한 나’ 자리는 그러한 오고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리입니다.

“지루하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지루함’이라는 대상을 향해 치달리는 우리의 의식을 돌이켜서, ‘지루함’이라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인 ‘순수한 나·참나’ 자리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러운 앎을 지닌 ‘나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참나’는 시간·공간의 제약을 일체 받지 않고, 생각·감정·오감으로부터 초월하여 100% ‘나’로서 존재할 때, 인식되는 자리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일 따름이다(I Am That I Am)”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나일 뿐이다!”라고 하여, ‘나’라는 존재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참나’로서 오롯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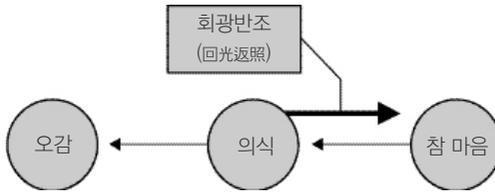


그림 3. 회광반조의 원리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견성(見性)’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며, ‘보임(保任)’이라는 것은 늘 이러한 경지에 안주하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인식할 수 없고, 공간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감만이 존재합니다.

이 자리는 꿈도 잠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잠을 깨건, 잠을 자건 그 자리는 여여(如如)합니다. 항상 또랑또랑하며 흰히 비추고 있죠. 생시·꿈·잠의 ‘3계’는 모두 현상계의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나’는 현상계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시간·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고, 생각·감정·오감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떠한 번뇌도 없습니다. ‘번뇌’가 있기 위해서는 ‘이기적 자아·개체적 자아’인 ‘에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고’란 시간·공간, 생각·감정·오감에 제약된 ‘나’입니다. ‘고민하는 나’에서 ‘나’는 에고이죠. 생각과 감정에 걸려 있으니깐요. 그런데 ‘고민’을 내려놓고 ‘나’로서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 순간 시공을 초월하여 ‘순수한 나’가 되어 버립니다. ‘에고’가 있어야 고뇌가 생깁니다. ‘에고’가 있어야 ‘이기적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 욕심이 생겨야 온갖 번뇌·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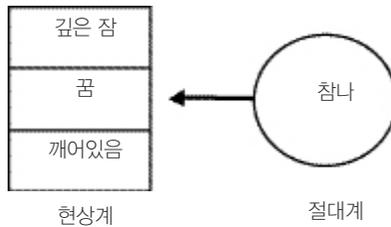


그림 4. 생시, 꿈, 잠을 일한 참나

이 이야기됩니다.

이 ‘순수한 나’의 자리는 ‘우주 = 나’인 자리예요. 흔히들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다!”라고들 하는데, 100% ‘순수한 나’로만 존재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못 느끼거든요. 온 우주가 통째로 ‘나’일 뿐이죠. ‘나’와 ‘우주’를 구분하지 못해요. 우주라는 말도 불 요하죠.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온통 ‘나’일 뿐이고,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상태이죠.

이 청정(淸淨)·광명(光明)한 ‘참나’ 상태에서는, 시공간에 제약된 ‘나’, 즉 ‘에고’가 작용하지 못하니, 부족한 것이 없죠. 부족한 것이 없

으니 욕심낼 것이 없고요. 원하는 것이 없으니 번뇌도 없고 항상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부자죠. 아주 부자예요. 부족을 전혀 못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부처님들이랑 내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오해마세요. 부처님과 내가 거둔 ‘결과’, 즉 열매·결실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닌 ‘씨앗’과 내가 지닌 ‘씨앗’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알이 동등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돈오(頓悟)’예요. 우리가 시간·공간, 생각·감정·오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즉시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나는 나일 뿐이구나!” 라고요.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절대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것도 단박이지만, 도달하자마자 ‘제한적 자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단박에 박살납니다. 다시는 고개를 내밀지 못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경에 보면, 인간이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닦고 버려야 하는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① 육신에 집착하는 견해·② 회의적 의심·③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④ 탐욕(욕계)·⑤ 분노·⑥ 색계에 대한 탐욕·⑦ 무색계에 대한 탐욕·⑧ 아만(我慢, 자만심)·⑨ 들뜸(산란한 마음)·⑩ 무명(無明, 무지)이 그것입니다. 이 족쇄·결박들은 욕계·색계·무색계를 망라한 것들입니다. 이 족쇄들만 모두 벗어던질 수 있으면, 현상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오’를 했을 때, 단박에 끊어지는 족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죠. ‘① 육신에 집착하는 견해·② 회의적 의심·③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의 3가지 족쇄가 단박에 끊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3가지 족쇄는 우리가 ‘참나’를 보지 못해서 생긴 판타지들입니다.

① ‘육신에 집착하는 견해’란 ‘나 = 육신’이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4 원소들의 결합에 불과한 이 몸뚱이를 영원불멸의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의적 의심’은 ‘참나’를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는 의심입니다. 참나가 과연 있을까? 우리 안에 불성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하는 그런 끊어지지 않는 의심들을 말합니다. ③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는 특정 계율만 지키면 ‘참나’를 보려니 하는 망상입니다. 계율도 현상계의 규범일 뿐입니다. 계율 자체에 집착해서는 현상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 존재하는 ‘참나’를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돈오’를 하고 나면, ‘참나’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이상의 3가지 그릇된 견해는 단박에 부서집니다. 바다를 한 번 본 사람에게, 바다를 보기 전에 품었던 바다에 대한 이런 저런 판타지들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죠. 그러나 ‘참나’를 체득한 것만 가지고는 깨지지 않는 뿌리 깊은 번뇌들이 있어요. ‘무지 · 아집’으로 이루어진 족쇄들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돈오’ 이후 ‘점수’를 통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타파해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는 강의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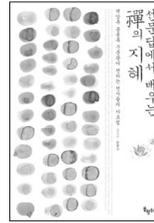
- 이 글은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웁긴이 | **윤홍식**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및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인들이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몰입사고, 마음챙김, 호흡명상 등을 교육하는 홍익학당을 운영하며, 저술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씨사이버문화센터(www.dongacc.com)에서 <몰입의 힘>, <나를 바꾸는 명상>, <고전에서 배우는 행복의 지혜> 등의 사이버강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보자를 위한 단학>, <조선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한국 큰스님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 <윤홍식의 옹호비결 강의>, <5분 몰입의 기술>(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이 있다.

윤홍식의 수심결 강의

윤홍식 저 | 봉황동래 권 | 18,000원

총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은이 스스로의 불교수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자도 부담 없이 수행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일념집중의 4단계, 견성의 3단계, 지혜계발의 4단계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돈오점수론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불교 선사들의 어록뿐 아니라 유교나 도교, 기독교 등 타종교의 예를 들어 돈오점수론의 보편타당성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부록으로 '우도'가 실려 있다.



선문답에서 배우는 禪의 지혜

윤홍식 저 | 봉황동래 권 | 16,000원

이 책은 선문답 하나하나를 살펴보되, 선문답을 화두로 삼고 의심하는 '화두선의 길'이 아닌, 선문답을 통해 곧장 그 자리에서 참나를 되찾도록 인도하는 '반조선의 길'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이는 화두선 또한 반조선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화두선은 물론 염불선, 위빠사나까지 모두 반조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한 증거로 논한다.

